성매매특별법 시행 1 년] '숨어서 불켜는 홍등' 더 늘었다 유사 성행위업체 기승 인터넷 성매매도 늘어; "변태 노래방만 키웠다"; 유흥업소·집창촌 반발 6 개월간 반짝 단속 이후엔 제자리 걸음

2005. 9. 23 일로 ‘ 성매매특별법’ 이 시행된 지 1 주년을 맞았다. 이 법률은 처음엔 성매매 업주와 성매수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률로 ‘ 9·23 혁명’ 으로까지 불렸다. 하지만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한 유사성행위나 인터넷 성매매 등 음성적인 성매매는 갈수록 번창하고 있다. 집창촌 업주들과 성매매 여성들은 “ 생존권을 보장하라” 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.

시스템다이나믹스 모델링을 통해

1) 성매매 특별법 시행의 명암 과
2) 정책의 유효성 그리고
3) 대안을 을 살펴본다.